

찾아가고 찾아오고...

바쁜 지관스님

중정·원로의장스님 예방, 정계인사들 잇따라 방문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11월 1일 오전 해인사 퇴실당에서 중정 법전 스님을 예방한 후 우에는 청주 보살사에 주석하고 있는 원로의장의 의장 종산 스님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중정 법전 스님은 지관 스님에게 "화합이 근본이며, 화합과 안정이 있어야 종단 발전도 있다. 우리는 모두 일불제자니 파벌이 있어서는 안되며, 남을 도와야 할뿐이어서는 안 된다"며 '화합'과 '안정'을 강조했다.

이에 지관 스님은 "모든 대중과 함께 종단이 화합하고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정스님의 지도와 격려를 요청했다.

종산 스님도 "유사에서 밝혔듯 모두 투표 결과에 승복해야 하며, 지관 스님도 다른 후보자들의 뜻을 포용해 화합하고 하나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지관 스님은 "모든 후보자의 뜻을 포용해 종단이 화합하고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며 도움을 구했다.

이날 종산 스님은 사면과 복권문

제, 승려노후대책문제 등 종단에 산재한 몇 가지 문제를 언급하고 종진 스님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리고 원로의회의 의장을 맡는 동안 종단의 위계질서만은 바로잡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법전 스님을 예방하는 자리에는 교육원장 청화, 포교원장 도영, 중앙종회의장 법등 스님 등 20여 명이 배석했다.

한편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도 4일 잇따라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의장이 "현재 (열린우리당) 사정이 어려워 좋은 가르침을 얻고자 찾아왔다"고 말하자 지관 스님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뒤이어 따라오며, 어려운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잡고 묵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대표도 "아당이지만 당면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자 지관 스님은 "불교 정신에서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찾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배지선·김강진 기자



군중특별교구 주지 일면 스님(현관 오른쪽) 등이 헌편 제막식을 봉행하고 있다.

군중특별교구 '이름표' 달고 도약 다짐

국방부 호국원광사서 헌편식...29일 군승총회

조계종 군중특별교구 헌편식이 11월 3일 서울 국방부 호국 원광사에서 봉행됐다. 헌편식에는 군중특별교구 주지 일면 스님, 부주지 계성 스님, 군중교구 각 국장법사들, 국군불교총신대회 전인구 사무총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일면 스님은 이날 행사에서 "오늘 헌편식을 계기로 군포교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불자들이 도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승총회'를 개최한다. 제37주년 군승의 날 기념법회는 30일 오전 11시 서울 하림각에서 봉행된다.

강유신 기자

탁연스님·김형남변호사 규제개혁위원회에 위촉

문화관광부는 "조계종 문화부장탁연 스님(당연직)과 법률전문위원 김형남 변호사가 규제개혁위원회로 위촉됐다"고 11월 2일 밝혔다.

탁연 스님과 김형남 변호사는 최영갑 성균관 총무처장, 변진홍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재위촉)과 함께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전통사찰과 학교 등 종교업무 분야 규제개혁자문을 맡게 된다. 남동우 기자

부산 선암사 검수인계 주지에 원범 스님

부산 범어사주지 대성은 11월 1일 조계종 호법부의 입회하에 선암사 주지직 인수 절차에 들어가 검수인계 과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5민사부가 선암사 前 주지 정야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및 주지 해임 처분 무효' 신청을 기각하면서 취해진 조치다.

선암사는 1년 전 주지 임명장을 받았던 원범 스님이 주지직을 맡았다. 부산=천미희 기자

고침 본지 550호 14면 기사 중 '서울 승가사 주지 상륜 스님'을 '서울 승가사 회주 상륜 스님'으로 고칩니다.

선거 끝난 조계종 '선거법 개정' 목소리 확산

선관위윈도 '투표' 하다니...

'공직' 유지한채 출마 등 비합리적 조항 "빨리 손봐야"

'조계종 선거법 이대론 안 된다.'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선거를 치르면서 자연스럽게 모아졌던 의견이다. 이번 선거에서 종단의 관행과 중헌종법 미비 사항에서 오는 충돌 현상이 정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선거 폐지론'에서부터 '직선제'까지 다양한 의견이 오갔지만, 우선 현행 선거법부터 보완·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중무원 선거권 등 제한

중앙총무기관 교역직 중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 등 선거 중립의무가 있는 스님들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일반 사회로 보면 대법원장격인 호계원장과 국회의장격인 중앙종회 수석부장이 '공직'을 유지한 채 이번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해 청정선거실현운동본부와 청정선거문화정착운동본부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과열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해 일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권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선거할 뜻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기 때문이다.

▲교구 선거인단 기준 정해야

현행 총무원장 선거법에는 '재임중인 중앙종회의원과 각 교구 총회에서 선출하는 10인으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에서 총무원장을 선출한다'라고 돼 있을 뿐 이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다. 즉 사미니가 교구 선거인단으로 선출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승랍 몇 년 이상의 비구 또는 비구니 등 교구 선거인단에 대한 자격 규정이 중헌종법에 명확하게 적시되어야 한다.

▲선거공영제 입법화해야

이번 선거에서 4개 단체가 정책토론회를 준비했지만 각 캠프에서 난색을 표시해 정책 토론회가 무산됐다. 선거가 대결로 가기 위해선 정책 토론회 의무 개최 등 선거공영제가 입법화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청정선거실현운동본부 등이 선거 감시기구로 활동했지만 입의단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 또한 공식기구로 입법화해 공명선거 분위기를 유도해야 한다.

▲후보 자격 기준 명확히

이번 선거에서 후보 자격 시비로 불거졌던 종헌 9조 3항과 중무원법 등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종헌 9조 3항에 따르면 '본종의 승려가 사실사임을 장건하였을 때는 반드시 종단에 그 사임(재산)을 등록해야 하며 법인을 설립했을 때는 그 정관에 당해 법인이 본종 관장하에 있음을 명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반 사회법과 충돌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세부사항이 명기되지 않아 불필요한 논쟁의 소지가 있다. 총무원법 또한 보다 세부적으로 다듬어야 한다.

▲후보납입 규제방안 마련

현행 총무원장 선거법에 따르면 총무원장 피선거권으로 '종단 재직승으로서 승랍 30년 이상, 연령 50세 이상, 법계 2급 이상의 비구'로 되어 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이번 선거에 여러 후보들이 출마했지만 두 스님은 한 표도 못 얻었고, 한 스님은 겨우 한 표를 얻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따라서 총무원장 출마 시 일정 금액의 종단발전기금을 기탁하도록 해 어느 정도 표를 획득하지 못하면 종단에 귀속시키도록 한 다든지, 교구본사 주지나 중앙종회의원 추천을 통해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도 11월 3일 열린 제25차 원로의회의에서 "직접 선거에 임해보니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중정예하를 비롯해 원로의원스님들과 사부대중의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 안에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선거법 개정 의지를 표명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청정선거운동 단체들...직선제·공영제 등 촉구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선거 기간 동안 공명선거운동을 전개했던 단체들이 잇따라 선거법 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청정선거실현 승가운동본부(상임대표 수완, 이하 청정선거 운동본부)는 ▲비구(니)계 수지 5년 이상의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직선제로의 전환 ▲후보 출마 시 말사 주지를 제외한 모든 공직의 사퇴 ▲간선제의 경우 중앙선거위원회나 중앙총무기관 교역직 스님들의

선거인단 출마 금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정선거 운동본부는 또 ▲중앙선관위 산하에 선거감시단 구성 ▲후보 납입 방식을 위한 후보자 추천제 도입 ▲정책토론회 의무적 개최를 비롯한 선거공영제 전면 도입 등을 촉구할 방침이다. 청정선거문화정착 운동본부(공동본부장 김의정 등)도 11월 2일 성명을 발표하고 직선제 도입과 일부 스님들의 공직사퇴를 촉구

했다. 운동본부는 "비구(니)계를 수지한 후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스님들이 참여하는 직선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정선거정착 운동본부는 또 신임 총무원장 지관 스님에게 ▲종단운영의 투명화 ▲종단의 위외와 질서 확립 ▲종단의 정체성 정립 ▲포교 및 포교연구개발 강화 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철주 기자

대학생 간화선 연구개발팀 발족

조계종 포교연구실, 맞춤프로그램 등 개발계획

조계종 포교연구실이 청소년에 이어 대학생들을 위한 간화선 수행 프로그램 연구 개발팀을 구성하고 청년포교에 나섰다. 조계종 포교연구실(실장 진명)은 11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에서 '대학생 간화선 수행 프로그램 연구개발팀'

발족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연구개발팀은 대학생에게 맞는 간화선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는 한편, 지도자과정, 프로그램 운영계획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대학생에게 맞는 영상 자료, 음악 자료와 심성프로그램 자료를 수집, 개발할

예정이다. 포교연구실은 특히 대학생 간화선 프로그램을 중립대학에서 채택할 수 있는 정규 커리큘럼 형식과 사찰 청년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개발할 방안을 세우고 있다.

연구개발팀은 포교원 신도국장 원철 스님과 정야 스님, 황수경, 김호규, 서재영 등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강사, 박영희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 전임연구원, 김홍근 성천문화재단 연구실장으로 구성되었다. 실무요원으로 포교원 고명석 연구과장, 이상규 신도과장, 김병주 포교과장, 송주실 연구주임 등이 참여한다. 진명 스님은 "계층 간 포교를 정착할 방안을 연구하고 기본수행 및 지도자 과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비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털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6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FAX (02)737-0697 온라인서점 예시어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연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대한불교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지관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포교·교육·복지·기도를 실천하는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호국참관관음기도도량 삼각산 도선사

- 조 실 휴암 정천
- 부조실 경하 현성
- 회 주 진불장 혜성
- 주 지 선묵 혜자

청담장학문화재단 이사장 동광

사부대중일동